

# “설 호남 민심 잡아라” 여권 잠룡들, 당 심장부 쟁탈전 치열

### 정세균, 10일 광주서 중대본회의·연료전지 착공식 참석

### 이낙연 당대표, 설 전 지지율 회복 위한 행보 적극 검토

설 명절을 앞두고 여권 잠룡들의 당 심장부인 호남 표심 잡기 경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3일 광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를 앞둔 10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

정 총리는 이어 이날 오후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제1하수처리장 간 이월 중계로 열리는 빛고을에코 연료전지발전사업 착공식에 참석한다.

정 총리는 또 이날 kbc광주방송과 대담도 예정돼 있으며 2-3개 추가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제3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등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대권 경쟁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광주시청에서의 중대본 회의는 광주가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다른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설 발상 민심을 잡기 위해 행보로도 보인다.

지난 18일 광주를 방문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설 전 광주와 전남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호남에조차 지지율이 뒤쳐진 이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텃밭에서의 1위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전남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역의 현안 법안을 이례적으로 거론하는가 하면 코로나19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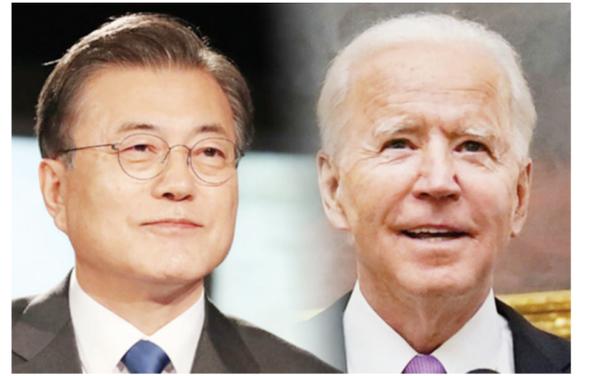
기를 극복할 '이낙연표' 신복지제도를 제시하는 등 과거와 다른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으로 통하는 이계호의원은 “이 대표가 설 전에 광주·전남지역 방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2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AI협약식을 매개로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고 돌아갔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칠 설 연휴를 앞두고 여권 잠룡들이 당의 최대지지 기반인 호남의 표심을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 문재인 “한반도 평화 공동 노력” 바이든 “한미 공통목표 긴밀 협력”

### 32분 동안 첫 한미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25분부터 57분까지 32분간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한미 정상통화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을 적극 평가한다”며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 함께 마련해나갈 필요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여내 평화 협력에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이번 통화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에 이뤄지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시절 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짧은 축하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공식 취임 후엔 처음 이뤄지는 통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국민 통합과 더 나은 재건을 향한 비전을 실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축하와 성원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의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 하나가 한국”이라며 “한미 양국 관계가 70여 년간 계속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관계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미 간 여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동맹을 재확인했다. 또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인권 및 다자주의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고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한미정상 회담을 갖기로 했다.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은 의견을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등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하며 “기후 변화 대응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4월 22일로 예정된 세계 기후정상회의와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보급,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호혜적 협력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주만 30%대로 하락...北원전 논란 영향

### 긍정, 3.5%p 하락 39.0%...부정, 3.8%p 상승 56.6%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1~3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3.5%포인트 내린 39.0%(매우 좋음 21.4%, 잘하는 편 17.6%)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3.8%포인트 오른 56.6%(매우 잘못함 41.7%, 잘못하는 편 14.9%)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7.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모름·무응답'은 0.3%포인트 감소한 4.4%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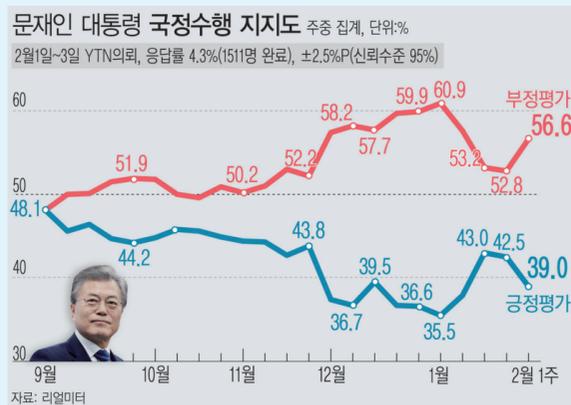
긍정평가는 1월 3주차 43%→1월 4주차 42.5% 등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3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주간 조사에서 50%대 초반으로 내려왔던 부정평가는 다시 후반으로 올라가며 긍정평가와 격차를 벌리는 모습이었다.

리얼미터 측은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불거진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영향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에 부정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진보층(10.6%p ↓, 76.6%→66.0%, 부정평가 27.0%)에서 크게 하락했다. 또 중도층(2.2%p ↓, 40.6%→38.4%, 부정평가 59.4%)에서도 빠지는 모습이였다.



## 민주 30.6% 국민의힘 32.3%...서울 부·울·경 국민의힘 우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뒤집혔다. 국민의힘이 1.7%포인트 앞섰다. 서울 지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가 YTN 의뢰로 실시한 2월1주차(1~3일) 주중 잠정집계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주간집계 대비 1.8%포인트 내린 30.6%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6%포인트 오르면서 32.3%를 기록했다.

4월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과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주간집계보다 8.2%포인트 오른 37.1%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8.7%포인트 하락하면서 24.8%를 기록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3%포인트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3.8%포인트 오르며 39.4%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9.2%포인트 떨어지면서 24.5%를 기록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4.9%포인트다.

뉴시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